



2018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예술가 공모 최종 선정 결과

2018 INCHEON ART PLATFORM Open Call for Artists-in-Residence Program FINAL RESULT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예술가 선정 공모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인천아트플랫폼 9기 입주예술가 선정 최종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5.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 최종 합격자 명단 (분야별_접수번호 순)

가. 시각예술 부문

○ 예술가/국내 (장기, 11개월/2018년 3월 ~ 2019년 1월)

접수번호	성명	접수번호	성명
92017110310038	민*홍	9201711050174	신*은
9201711020069	이*실	9201711050176	전*경
9201711030085	안*훈	9201711050194	이*이
9201711030091	전*주	9201711060224	박*희
9201711030105	구*영	9201711060240	전*구
9201711040114	이*은	9201711060251	이*중
9201711040120	김*모	9201711070293	윤*진
9201711040126	이*희	9201711070323	임*주
9201711040150	전*림	9201711070329	양*욱

○ 예술가/국외 (단기, 3개월/기간별)

접수번호	입주기간	성명	국적
9201711040147	2018/03~05	Mo Mo Si*ra	네덜란드
9201711050192	2018/06~08	La*is Ha*gag	이집트
9201711070302	입주기간 조정 : 2018/03~05→2018/09-11	Lu*iano Zu*illaga	이탈리아

○ 연구·평론가 (장기, 11개월/2018년 3월 ~ 2019년 1월)

접수번호	성명
9201711050168	이*헌
9201711070319	손*이

나. 공연예술 부문

○ 예술가 (장기, 11개월/2018년 3월 ~ 2019년 1월)

접수번호	성명	그룹명	그룹 총 인원
9201711070330	조*희	이*람×조*희	2
9201711070325	신*훈	극단 작*방	7

○ 연구·평론가 (장기, 11개월/2018년 3월 ~ 2019년 1월)

접수번호	성명
9201711070306	박*상

※ 일부 선정 작가의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입주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비 합격자 명단

가. 시각예술 부문

구분	접수번호(차순위 순서)
국내 예술가	9201711030099
	9201711050191
	9201711060210
	9201711060228
	9201711070313
	9201711010052
	9201711070336
	9201711060254
	9201711060204
연구·평론가	없음

나. 공연예술 부문

구분	접수번호(차순위 순서)
예술가	9201711060242
	9201711070332
연구·평론가	없음

■ 입주 절차 및 오리엔테이션 (예정)

○ 입실기간 : 2018년 3월 5일(월) ~ 3월 7일(수) 중

○ 오리엔테이션 : **2018년 1월 18일(목)**, 14: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예정

- 선정된 예술가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계약서 작성, 입주 관련 안내, 스튜디오 배정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 배정은 오리엔테이션 전에 이메일 안내에 따라 희망 신청 1순위를 받으며, 중복 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안내합니다.
- 지참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개인도장

(※ 그룹의 경우, 대표(신청자)는 모두 지참, 팀원은 거주지 증빙이 가능한 신분확인 서류 사본 제출)

○ 문의처 :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담당자(032-760-100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 심사위원 및 최종심사 총평

○ 심사위원

[시각예술 부문]

- 2차 인터뷰 심사 : 심상용(동덕여대 교수, 미술평론가), 유진상(계원예대 교수, 미술평론가),
이준(리움미술관 부관장), 정현(인하대 교수, 미술평론가), 최병국(인천아트플랫폼 관장)
- 1차 서류 심사 : 고동연(미술평론가), 김장언(독립큐레이터), 김현진(독립큐레이터),
오세원(CR컬렉티브 디렉터), 홍경한(강원국제비엔날레 예술총감독)

[공연예술 부문] : 박재천(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조형준(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장),
최용훈(극단작은신화 대표)

○ 최종심사 총평

[시각예술 부문]

2018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예술가 선정 과정은 예술계에 새로운 비전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작가들을 선정한 결과가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심사는 전반적으로 예술가의 역량과 입주 작가로서 운영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주예술가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작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령, 세대, 지역, 장르별 훌륭한 역량을 지닌 다양한 작가들이 지원하였으며, 작업 내용의 수준이 높고, 지적인 깊이도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나 높은 창작 수준에도 불구하고 양식, 기법 등이 형식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으로만 패턴화 되어있는 경우가 있었고, 신선한 도전과 새로운 시대를 전개하는 작가가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동시대 미술이 일종의 '제도' 내지는 '트렌드'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선정된 작가들은 자신만의 경험을 탐구와 실험으로 좀 더 이어 개별성, 독창성의 차원을 보강하면 좋을 것 같다.

연구자의 경우 지원자가 예상보다 저조하였으며, 그 간의 연구와 기획 역량을 모두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괄목할만한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의 지원이 많아진 점은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 생각되며, 인천에서 수행할 창작의 이야기가 예술가들에게 내면화 되어 독특하게 시각화되길 기대해볼 수 있겠다. 아무쪼록 2018년의 활동에 많은 협력과 기여가 있기를 바라며, 개별적인 성취와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공연예술 부문]

공연예술부문 작가 공모의 정책적 지향과 운영 결과가 작가 지원의 본연에 목표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문화·예술적 접촉점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작업 목표와 비전, 그리고 그 성과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또한 레지던시 참여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업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의 견고함이 생기길 기대한다.

최종 선정한 '극단 작은방(신재훈)'은 사업계획과 그 작업의 확장성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확보하고 있고, '조은희×이아람'은 작업의 확장성에 있어 다각적인 접촉지점이 있어 사업의 정책적 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공연예술 그룹의 경우 전반적으로 레지던시라는 틀에 얽매어 너무 장소특정적 지향에 치우치는 지원 경향이 아쉬운 지점이었다. 국내 공공 레지던시 기관이 늘어나고, 레지던시 지원과 응모가 증가하는 추세는 입주하여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정밀하고 완성도 있는 작품을 개발하고자 함이라고 본다. 예술가들이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창조적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을 확장하고 재공연과 지속적인 공연물이 될 수 있도록 창작 이후의 결과와 진행도 염두하기를 바란다.